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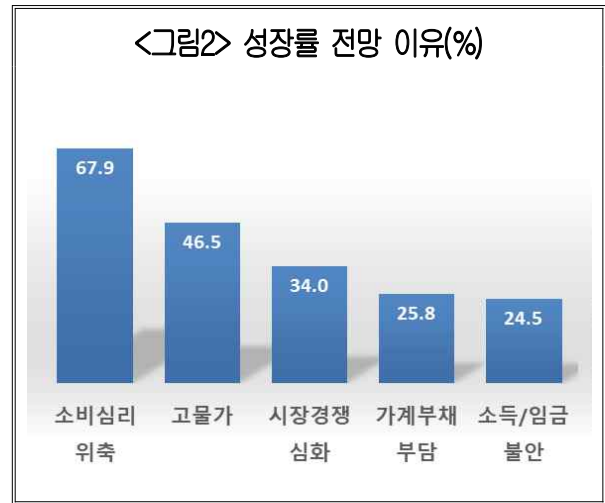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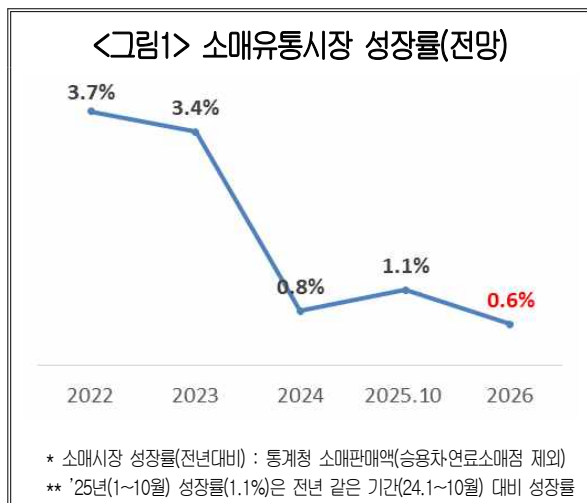
자료명	2026 유통산업 전망 조사
엠바고	12월 22일(월)자 석간(통신, 인터넷 등은 12/22(월) 06:00)
문의처	유통물류정책팀 김민석 팀장(010-6326-5578, 02-6050-1510), 염민선 연구위원(1513)

高물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내년 소매유통 성장률, 5년 내 최저 전망

- 대한상의 조사, ‘2026년 유통산업 전망 조사’... 2026년 소매유통시장 ‘0.6%’ 성장 전망
- 업태별 희비 엇갈려... 온라인 3.2% 성장, 대형마트슈퍼마켓 등 오프라인은 ‘위축’
- 상의 “소비 진작책,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개선, 성장잠재력 확충 등 대책 필요”
- 2025년 유통업계 7대 뉴스 : ‘민생회복 소비쿠폰’, ‘내수부진 지속’, ‘온라인 성장세 둔화’ 등 꼽아

내년 국내 소매유통시장 성장률이 고물가, 고환율, 소비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최근 5년 간 가장 낮은 0.6%에 그칠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전국 소매유통업체 3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유통산업 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2026년) 국내 소매유통시장 성장률이 0.6%에 머물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소비심리 위축(67.9%), 고물가(46.5%), 시장경쟁 심화(34.0%), 가계부채 부담(25.8%) 등을 꼽았다.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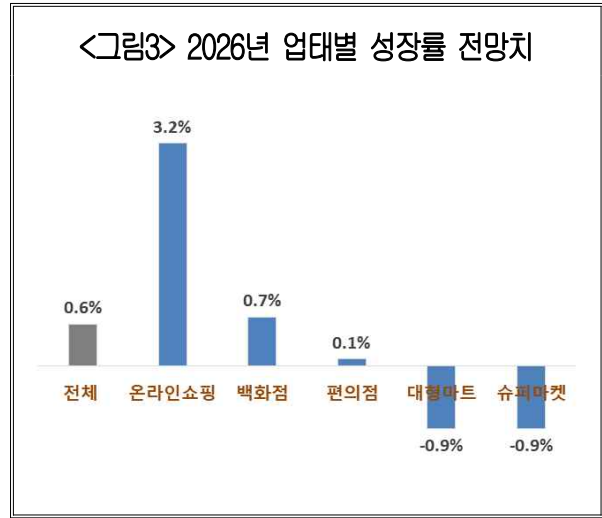


업태별 희비 엇갈려... 온라인 ‘3.2% 성장하며 시장 견인’, 대형마트슈퍼마켓 등 오프라인은 ‘위축’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이 2025년 대비 3.2% 성장하며 전체 소매 시장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는 가성비와 실용성을 중시한 합리적 소비트렌드 확산, 배송 서비스 강화 등에 힘입은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전통적인 오프라인채널인 대형마트 (-0.9%)와 슈퍼마켓(-0.9%)은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형마트는 온라인과의 경쟁 심화,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량 구매 트렌드, 할인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슈퍼마켓 역시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온라인 유통채널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근린 상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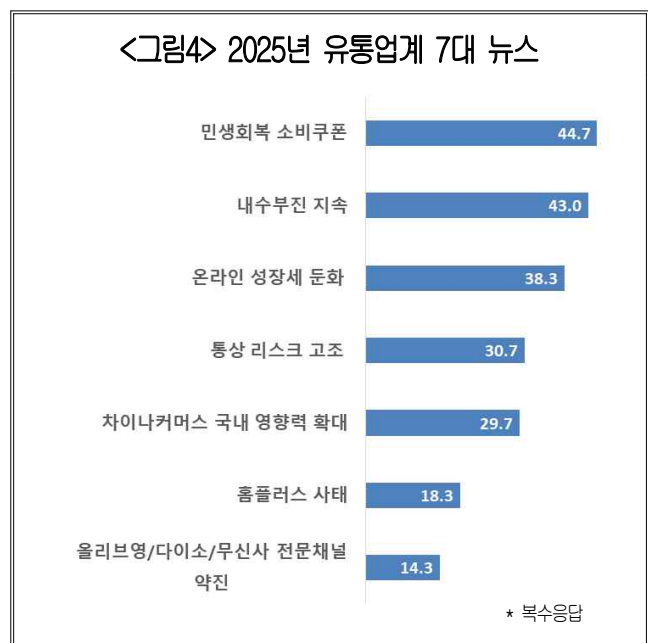
반면, 백화점은 0.7%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 속에서도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치 상승에 힘입어 고가 제품을 구매하는 명품 소비와 엔터테인먼트 등 체험형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유지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편의점은 +0.1% 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었다. 근거리 쇼핑의 수요는 여전히 높으나, 인건비와 임대료 등 비용 상승 압박과 점포 간 경쟁 심화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2025년도 유통업계 7대 뉴스... ‘민생회복 소비쿠폰’, ‘내수부진’, ‘온라인 성장세 둔화’ 등 꼽아

유통업계의 관계자들은 2025년 유통업계 7대 뉴스 중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44.7%) 지급’을 1위로 꼽았다. 경기 침체 속에서 내수 진작을 위해 추진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통시장, 중소형 슈퍼 등 근린형 채널을 중심으로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


이어 내수부진 지속은 43.0%의 응답률로 2위에 올랐다. 경제성장 둔화 등과 함께 소비심리 위축요인으로 작용하며 유통 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3위는 ‘이커머스 성장세 둔화(38.3%)’가 꼽혔다. 엔데믹 이후 온라인 시장의 외형적 성장이 둔화되면서 시장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졌다.

2026년도 유통업계의 시장 전망을 감안할 때, 내수 부진, 소비 심리 위축, 그리 유통 시장내 경쟁심화 등의 어려움이 전망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

박경도 서강대 교수(한국유통학회장)는 “국내시장 성장이 정체되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유통산업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업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이 매우 중요하다” 면서, “특히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춘 K-뷰티, K-푸드 등 K-콘텐츠 연계 상품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우스 시장 개척 등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고 제언했다.

이희원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코리안그랜드페스티벌과 같은 소비 진작책,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개선, 지역 거점(5극 3특)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육성, AI 등 산업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 ‘2026 유통산업 전망 조사’ 개요 >

- 조사기간 : 2025. 11.14 ~ 11.21
- 조사지역 : 서울 및 6대 광역시
- 조사대상 : 소매유통업(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온라인쇼핑) 300개 업체
- 조사방법 : 모바일 및 전화 조사